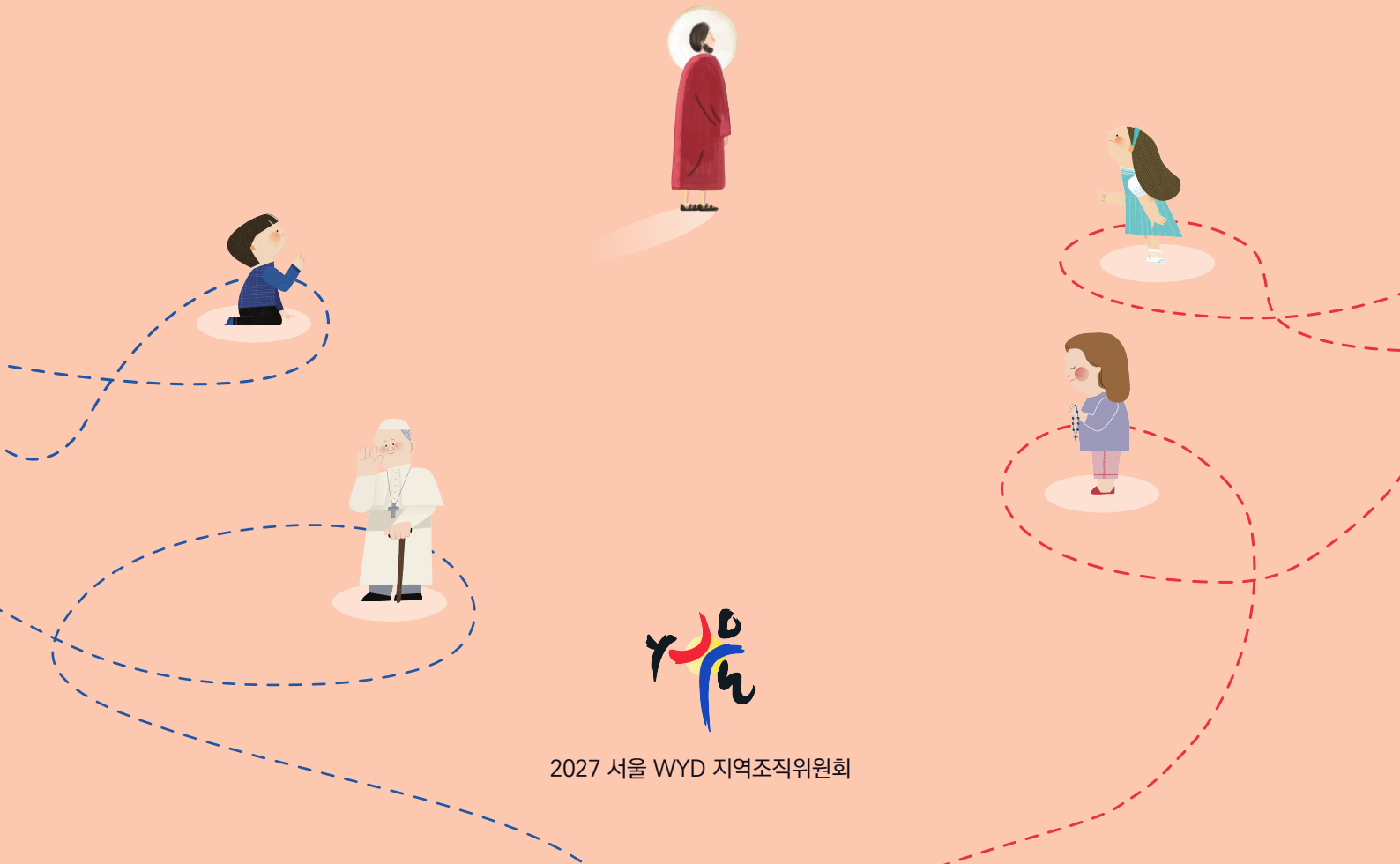


워크북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CHRISTUS
VIV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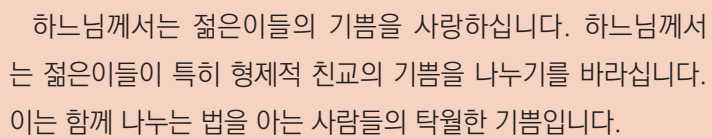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머물고
 그분과의 '접속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지력만으로는
 행복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끊어지지 않게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접속되어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때에,
 “예수님, 저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라고
 주님께 여쭙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58항, 프란치스코 교황





A stylized, flat-design illustration of an elderly priest. He has a large, rounded nose, rosy cheeks, and a friendly expression. He is wearing a white cassock with a blue cross necklace. His right hand is raised in a waving gesture, and his left hand rests on a dark wooden staff. The background is a solid light blue.



생각해 보아요

- □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우정을 맺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이를 보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신앙을 전해 준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
-
-
-
-
-
-
-
-
-
- □ 내가 주변 친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
-
-
-
-
-
-
-



○ 시작 기도

○ 나누고 듣기

○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 함께 만들어 나가기

‘시노드를 위한 기도’ 16쪽을 함께 바칩니다.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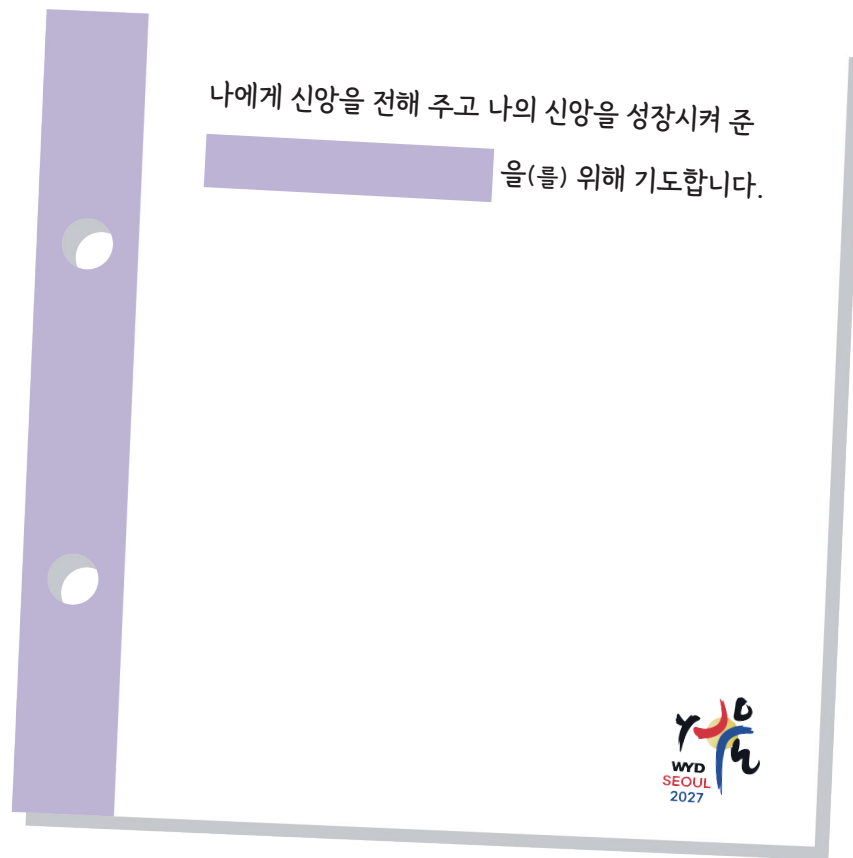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나에게 신앙을 전해 주었거나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었던 분을 떠올리며 각자 짧은 기도문을 써 봅시다. 그리고 이를 모아 공동체원과 함께 릴레이 기도문으로 작성합니다. 이 기도문을 사진으로 찍고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로사 할머니 이야기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항상 노인들의 지혜, 특히 신앙의 전수에 있어 조부모가 지닌 '위대한 임무'에 대해 자주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삶으로 증거하고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생각은 알도 마리아 발리 Aldo Maria Valli 가 쓴 소책자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Avete un compito grande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책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릴 적, 친할머니이신 로사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을 전해 주었는지 고백하는 이야기가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신앙의 여정을 알려 주신 분은 아버지의 어머니, 즉 친할머니였습니다.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저녁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저희를 촛불 행렬에 데려가셨습니다. 이 행렬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셨고, 할머니는 그 앞에 도착해 우리와 함께 무릎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속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내일 다시 부활하실 거란다!’ 이렇게 저는 바로 이 여성, 저의 할머니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복음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는 어찌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첫 번째 선포를 듣다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을 전하는 많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바로 이들입니다. [...]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저의 친할머니, 로사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성인들의 삶을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13개월이 되었을 때 남동생이 태어났고 어머니는 어린 두 아이를 모두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살던 할머니께서는 아침에 저를 데리러 오시고 저녁에 다시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털어놓았을 때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만,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렴. 네 마음이 바뀐다 해도 아무도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교황님께서 전해 주신 로사 할머니의 또 다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제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종 할머니께서는 어린 우리들에게, ‘수익에는 주머니가 없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로사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직접 쓴 유언장을 아직도 성무일도에 접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돌본 나의 손자들이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 고통이나 질병,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슬픔으로 채운다면, 그들이 기억하게 하십시오. 가장 위대하고 존엄한 순교자가 모셔진 감실에서 탄식하고 십자가 아래 서 계신 마리아를 바라본다면,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에 한 방울의 향유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 로고

성령 위에 하나된 서울과 전세계의 청년을,
한국의 전통적인 서예기법으로
'서울'을 표기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 안에서
'W', 'Y', 'D'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WYD가 교차되는 모습을 통해
동서양의 조화로운 일치를 지향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